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 글로벌 車산업 발전 인물 선정

오토모티브 뉴스 '100주년 기념상'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 수상
"한국 제조·자동차 강국 도약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3대(代) 경영진이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에서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소규모 자동차 정비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3대(代) 경영진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로 선정됐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18일 현대차그룹 정주영 창업회장-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창간 100주년인 올해는 비전, 혁신, 리더십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로는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진 외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다(Akio Toyoda) 회장 등 토요다(Toyoda) 가문,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John Elkann) 회장 등 아넬리(Agnelli) 가문, GM의 메리 바라(Mary Barra) 회장, 포드의 빌 포드(Bill Ford) 회장 등이 선정됐다.

또한 세계적 디자이너이자 현대차그룹과 인연이 깊은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 GFG 회장, 현대차그룹 CDO(최고 디자인 책임자)이자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루크 동커볼케 사장과 현대차그룹 브랜드 앰배서더인 피터 슈라이어 전 사장도 '100주년 기념상'에 이름을 올렸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키다(Euisun Chung builds on family legacy while pushing Hyundai, Kia, Genesis to new heights)"라는 제목의 18일자 특집 기사를 통해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먼저 정의선 회장을 비롯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진의 '100주년 기념상'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2020년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회장에 취임했을 때 단순히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수십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서술했다.

이어 "현재 정의선 회장은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키는 등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보틱스와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분야로도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진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주영 창업회장은 '현대'라는 이름으로 선박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을 세웠으며 정몽구 명예회장은 품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주영 창업회장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굳은 의지로 시대에 도전하며 건설 회사를 시작으로 현대차를 설립하고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기아를 인수하고 현대차그룹을 출범시키며 품질 개선과 R&D 강화, 글로벌 경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한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 성장시킨 점도 부각했다.

이와 관련 정의선 회장은 오토모티브 뉴스에 "할아버지이신 정주영 창업회장은 항상 '시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중시하셨다. 창업회장은 고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며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확신했다. 창업회장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은 지금 현대차그룹 핵심가치의 근간이 됐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이신 정몽구 명예회장은 선진 시장, 신흥 시장을 불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했고 성취를 거두셨다. 품질, 안전, R&D에 대한 신념은 현대차그룹의 경영철학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Automotive News Congess)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K.C Crain) 오토모티브 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하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때 의미가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객중심의 설루션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를 위한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만 기자

기아, 상품성 강화 'The 2026 카니발' 출시

고객 선호 편의사양 확대 적용

기아가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The 2026 카니발'을 18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

The 2026 카니발은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기본 트림부터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The 2026 카니발의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전자식 룸미러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에는 ▲멀티존 음성인식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1열)을 기본 적용해 더욱 편리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며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를 기본화해 외장 고급감을 강화했다.

멀티존 음성인식은 차량이 1·2열 좌우 좌석별로 발화 위치를 구분 인식하는 기능에 웨이크업 명령어 "헤이, 기아"가 더해져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며 좌석별로 독립적인 피드백이 가능해 가족형 RV인 카니발에 최적화된 사양이다.

또한 기아는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의 명칭을 'X-Line'으로 변경하고 블랙 색상의 전용 엠블럼과 다크 그레이 색상의 전용 휠캡을 추가해 X-Line만의 강인한 느낌을 강조했다.

The 2026 카니발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3.5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The 2026 카니발 9인승의 트림별 가격은 3.5 가솔린 ▲프레스티지 3천636만원 ▲노블레스 4천71만원 ▲시그니처 4천426만원 ▲X-Line 4천502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4천91만원 ▲노블레스 4천526만원 ▲시그니처 4천881만원 ▲X-Line 4천957만원이다.

7인승의 트림별 가격은 3.5 가솔린 ▲노블레스 4천265만원 ▲시그니처 4천637만원 ▲X-Line 4천689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4천708만원 ▲시그니처 5천80만원 ▲X-Line 5천132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적용)

/임채만 기자